칼 럼

김 수 종 뉴스1 고문

# 전기자동차가 대세다

전기자동차의 단점으로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짧은 주행거리다. 전기차의 연료는 충전된 배터리다. 한 번 충전하고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훨씬 짧다. 충전시간도 많이 걸리고 충전 시설도 아직 크게 부족하다.

휘발유나 경유로 가는 최신 승용차는 탱크 가득 채우면 경부고속도로(400㎞)를 왕복할 수 있다. 기름이 떨어지면 지천에 깔려있는 주유소에서 10분 내에 탱크를 채울 수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에 처음 전기차가 보급될 때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는 150㎞ 내외였다. 그러나 최근 나오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최소 300㎞를 넘고 대부분 400㎞ 이상이다. 현대차가 작년 팔기 시작한 '코나'의 공인 주행거리는 406㎞다.

전기차 주행거리 400㎞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기자동차 전문가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택시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300㎞ 내외입니다. 1회 충전 400㎞ 주행 가능한 전기차 택시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한다고 쳐도 재충전 없이 하루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들은 이제 전기차를 구입해도 밤에 충전하면 이튿날 낮 동안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막는 큰 분수령을 넘었다는 의미다.

최근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9월12~22일)가 열렸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성이 높은 이 모터쇼도 자동차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 예년 같지 않다고 전해진다. 도요타 등 주요 메이커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출품하지 않았고, 많은 회사들이 전시장소 규모를 줄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전기자동차다. 과거 모터쇼에서 전기차나 친환경차는 미래의 콘셉트카 정도로 전시장 한 귀퉁이를 차지했었는데, 올해는 전기차가 당당히 쇼무대의 중앙을 차지했다.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방향이 급속히 바뀌는 문명의 흐름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짚어내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이 흐름에 열심히 올라서고 있다. 이번 모터쇼에 전기차 모델 '45'를 내놓아 미디어의 주목을 끌었다. 1974년 처음 선보인 '포니' 탄생 45년을 상징하는 이 전기차 모델은 한국에서도 전기차의 대량생산을 알리는 신호로 읽힌다. 최근 나온 전기차 판매 실적을 보면 현대기아차가 세계 5위로 올라섰다. 수소차에 올인하고 전기차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생각하면 현대차가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있는 셈이다.

전기차와 관련, 미디어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자동차 회사가 폭스바겐이다. '디젤게이트', 즉 최고경영자가 구속된 배출조작 사건으로 지난 3~4년간 자동차 시장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처했던 폭스바겐은 전기차 대량생산의 플랫폼(MEB)체제를 구축하고 과거 디젤차 메이커에서 전기차 메이커로 재등판했다. 폭스바겐의 환골탈태로 내놓은 전기차 모델이 'ID.3'다. 내년 판매될 이 모델은 예약을 받자 24시간 만에 1만대가 나갈 정도였다. 폭스바겐은 2차 대전 전 생산됐던 딱정벌레(Beetle)의 '국민차' 이미지를 ID.3가 되찾기를 기대한다.

이 모터쇼에 참가한 르노, 벤츠, BMW, 아우디, 혼다 등 기존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나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모델에 중점을 두었다.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이 30% 이상 줄어드는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일본 한국 중국이 각축을 벌여온 배터리 시장에 유럽이 컨소시엄을 통해 쟁탈전에 뛰어들고 있다. 르노가 1000만 원 대의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폭스바겐과 르노의 치열한 전기차 가격경쟁이 예상된다.

앞으로 다가오는 자율주행차와 차량공유제도 역시 전기자동차 기초 위에 정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연간 판매 기준으로 3%도 채 안 되는 전기차가 자동차 메이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말해 준다. 기후변화 시대에 자동차의 대세는 친환경차고 그 핵심이 전기차다. 속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방향은 정해졌다. 한국의 산업정책이나 교통정책 당국자가 이런 시대흐름에 잘 부합하는 비전과 전략을 확고히 갖고 또 잘 교감하고 있어야 한다.

社 說

# 충동적인 자살 막아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자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5명 중 1명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살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니 사회적인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발전에도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줄리가 없는 자살의 저연령화를 막는데 우리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해·자살 시도 응급실 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150여개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에서 자해·자살 시도로 인한 진료 14만1천104건 중 20대가 2만8천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내원 건수의 19.9%로 5명 중 1명꼴이다. 이어 40대 2만7천759건(19.7%), 30대 2만5천185건(17.8%), 50대 2만1천510건(15.2%) 순이었다.

자해·자살 시도로 내원한 환자의 연령별 증가율은 10대가 가장 가팔랐다.

10대 환자의 내원 건수는 2014년 2천393건에서 2018년 4천141건으로 73%가 늘었다. 이어 20대 63.1%, 80대 이상 56.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최근 5년간 자해 및 자살 시도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2014년 2만5천573건, 2015년 2만6천728건, 2016년 2만7천74건, 2017년 2만8천278건이다. 지난해에는 3만3천451건으로 처음으로 3만건을 넘겼다. 5년간 증가율은 30.8%에 달한다. 이 중 응급실에서 사망하거나 입원 후 사망한 건수는 2014년 2천175건, 2015년 2천45건, 2016년 1천881건, 2017년 1천761건, 2018년 2천90건이다.

이처럼 자해·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건수 5건 중 1건은 20대 환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자살 생각을 한 이유는 경제 및 가정생활, 성적 및 진로 등으로 나오는 만큼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자살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벌쏘임 예방 안전수칙 및 대처요령

근래에는 가족 캠핑 등 여가활동 등으로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온도가 높은 여름철은 벌레의 활동이 왕성해 벌레에 물리거나 침에 쏘이는 확률이 높아진다.

가장 흔한 것은 모기와 개미에 물리고 벌에 쏘이는 경우다.

모기나 개미에 물리는 것은 물린 부위가 약간 부어오르고 가려운 정도여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벌에 쏘이면 때때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벌은 꽁무니에 길고 가느다란 침을 통해 독액을 주사하는데 꿀벌의 침은 사람의 피부에 침과 함께 독액 주머니가 떨어져 나와 붙어 있지만 땅벌이나 말벌은 침이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꿀벌에 쏘였을 때 처치요령은 피부에 꽂혀있는 침과 독액 주머니를 제거해야 더 이상의 독액 주입을 차단할 수 있다.

꿀벌의 침을 제거할 때는 독액 주머니를 쥐어짜지 않도록 주의한다. 침을 제거한 다음에는 쏘인 자리를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고 얼음주머니로 냉찜질을 해주고 소염제를 발라준다.

야외활동 시에는 벌이 좋아하는 사이다나 콜라 등 단 음식은 가능한 먹지 말고 주변에 먹을 것을 두지 않아야 한다.

간혹 탄산음료 병의 뚜껑을 열어놓은 동안 들어간 벌에 의해 구강 내를 쏘이는 경우가 있다.

또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과 밝은 계통의 의복을 피해야 한다.

벌이 날아다니거나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주위에 있을 때는 손이나 손수건 등을 휘둘러 벌을 자극하지 않는다.

벌을 만났을 때는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고 소매 긴 옷을 착용하고 뿌리는 살충제를 준비하면 벌을 퇴치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최성영 /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 생활정보전화 | | 긴급전화 | |
|---|---|---|---|
| ▲이주여성 긴급전화 | 1577-1366 | ▲기상예보 | 131 |
| ▲응급질병상담 | 1399 | ▲법률구조상담 | 132 |
| ▲미아·가출인 신고 |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 222-5666 |
| ▲여성 긴급전화 |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 673-9001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 363-7739 |
| ▲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 121 |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 123 |
| ▲응급의료센터 | 1399 | ▲가스사고 신고 | 383-0019 |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